

“인류 과제인 치매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김성진 아시아치매연구재단 이사장 취임 1년

조선대 치매 연구 토대 출범...AI 진단 시스템 개발 박차 ‘바이오뱅크’ 설립 추진...치매 무료 검사·예방 교육 병행

“아시아치매연구재단은 자체 보유한 데이터를 매개로 기업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치매 연구는 물론 치매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아시아치매연구재단이 설립 1주년을 맞았다. 지난 2022년 2월, 재단 창립에 참여한 이사 10명을 대표해 취임한 김성진(사진) 이사장. 그는 치매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치매 진단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국책사업을 해당 부처에 신청한 상태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는 인류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저희 재단은 조선대가 10년 간 국

적 치매 연구로 쌓은 연구 실적을 토대로 출범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역사회 치매 연구에 활용하자’는 뜻을 가진 지역 인사들이 모인 것이 계기가 됐어요. 데이터와 검체 활용이 가능한 재단을 만들어 기업과 연구기관이 치매 연구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죠.”

재단은 지난 1년 간 재단이 소장한 자료를 치매 사전 예측·예방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해왔다. 우선 데이터와 검체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 내 생명윤리위원회 설치 허가를 받았다. 지금은 혈액 활용을 위



해 필요한 ‘바이오뱅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치매 무료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약 1000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특히 심리, 뇌파, 혈액 등 8가지를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김 이사장은 “AI 치매진단 시스템 개발과 관련 국책 사업에 선정되면 재단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며 “치매를 극복하려는 연구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예방 교육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광주 지역 치매 예방에 주축되고 같은 역할을 하겠다”며 “하루 속히 치매 문제가 해결돼 치매 걱정이 없는 세상이 오는 것이 모두의 바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이사장은 고흥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건국대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대변인 등을 역임했으며 공직 퇴직 후 제8대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에 취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광주공항과 문화예술 발전 협약



(재)광주비엔날레와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사진)

(재)광주비엔날레는 21일 광주공항 의전실에서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운상규 광주공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공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비엔날레 성공과 지역 항공·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추진 ▲상호 홍보 채널 지원 등의 교류를 통한 유기

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비엔날레의 도시’ 광주의 첫 관문인 광주공항과의 이번 업무 협약은 광주가 문화관광의 도시이자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기간 광주 시티투어버스 운영으로 광주공항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접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1호 관광창업 기업 ‘라포레메종’ 숲속 음악회 개최

전남 1호 관광창업 기업인 라포레메종이 최근 숲속 한옥 펜션 정원에서 ‘영혼을 울리는 마인드 포레스트: 숲 재즈 기타 선율’ 음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음악회를 찾은 관객들은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축축한 밤이슬과 숲속 가득한 피톤치드의 향이 잔잔한 기타 선율과 함께 전해져 벅찬 하루의 기쁨을 털어내는 잊을 수 없는 밤을 선사했다는 찬사를 보냈다. 공연을 선보인 재즈 기타리스트 ‘정규’는 뉴에이지풍의 잔잔한 연주를 유튜브(채널명 병담)를 통해 알리는 작곡가 겸 뮤지션으로 많은 이들에게 힐링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



숲속 음악회의 성공적 개최에 따라 향후 전남관광재단과 노은창 대표는 한옥 공간을 중심으로 계절마다 색다른 ‘숲속 음악회’를 개최하고, 지역 먹거리와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미식·공연관광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황인숙 ‘내 삶의 예쁜 종아리’

김중철문학상·지훈문학상 수상



황인숙(사진) 시인의 시집 ‘내 삶의 예쁜 종아리’ (문학과 지성사)가 제5회 김중철문학상과 제21회 지훈문학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문학수첩과 전남출판이 각각 밝혔다.

198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황 시인은 시집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슬픔이 나를 깨운다’, ‘우리는 철새처럼 만났다’, ‘나의 침울한, 소중한 이어’, ‘자명한 산책’ 등을 펴냈다. 동서문학상, 현대문학상, 김수영문학상 등을 받았다.

지훈문학상은 시인 조지훈(1920~1968)의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으로, 탁월한 감성과 통찰로 한국 문화의 저변을 넓힌 작가에게 주어진다.

/연합뉴스

“국민 안전 책임지는 소방인재 양성에 최선”

박동하 소방정, 광주소방학교 학교장 취임

제15대 광주소방학교장으로 박동하(사진) 소방정이 21일 취임했다.

2001년 소방간부후보생 11기로 소방에 입문한 박 학교장은 소방청 청장실 비서실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담당관, 호남119 특수구조대장, 장성소방서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박 학교장은 일선 현장과 소방정책기획 등 다양한 소방업무에 두루 거쳐 풍부한 소방행정 업무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합리적인 업무 추진으로 부하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신임박 소방학교장은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소방인재양성이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며 “전문적인 교육훈련과정 운영으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소방인재가 양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세계 물의 날 특별 생방송 -물의 길 희망의 물, 기회의 물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30 살맛나는 오늘
11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초이스	00 오아시스(재)	15 꾸러기 식사교실(재) 45 프린세스 바리(재)	00 애니갤러리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45 헬로키티 12 분바
12	00 KBS 뉴스 12	15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5 흥겨움전(재)	00 12 MBC 뉴스 25 일타강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오세도(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마도 마지막 존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티 글로벌 동물 뉴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50 어린이 동물티비			00 뉴스브리핑
3	20 팔도방송(재)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몽계공항 3(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시사건건	00 신상출시 펀스토링(재)	55 5 MBC 뉴스	00 최강 1교시(재)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내 친구 반인반어 15 소스리아 -사라진 레시피카드를 찾아서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고지식 만담회	50 비밀의 여자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걸어서 환장 속으로 -엄마가 뽀뽀	00 일타강사	00 골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30 라디오스타	40 편먹고 공치리5-승부사들
11	30 KBS 뉴스라인	00 9층 시사극 45 세상의 모든 다큐		
12	10 시사기획 창(재)	35 아이 러브 스포츠	10 꼭두의 계절(재)	4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들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히어로 씨클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뽕뽕뽕 뽕뽕
07:00 뽕뽕뽕 뽕뽕	12:00 EBS 뉴스 12	18:30 정글 플래닛
07:15 하프와 친구들	12:10 극한직업	19:00 순간 포착, 야생
07:45 엄마 깨투리	13:0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9:30 한국의 들레길
08:00 똥덩어리 유치원	13:50 EBS 다큐프라임	19:50 건축탐구-집
08:20 미니특공대 보이레인저스	14:45 한국의 들레길	20:40 세계테마기행 <정(情)겨운 캄보디아>
08:35 한글용사 아이야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인생, 트로트처럼 3부 막내의 꿈>
08:50 올감한 소방차 레이	15:35 꾸러기 천사들	21:50 EBS 다큐프라임
09:05 최고다! 호기심딱지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2:45 인간과 바다
09:20 시몽	16:15 페퍼 피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35 타타와 쿠마	16:25 슈퍼두퍼 잉글리시(재)	
09:4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6:40 똥덩어리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2일 (음 윤2월 1일 己卯)

<p>36년생 짐작함을 잃는다면 연쇄적인 흉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48년생 명확한 징후가 될 것이니 무시하지 마라. 60년생 간단명료한 것이 최상이다. 72년생 핵심에서 벗어나면 그만큼 손해로 이어진다. 84년생 숨이 가쁘도록 뛰어다녀야 할 바쁜 날이다. 96년생 전체적으로 힘든 국상이니 변동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7, 61</p>	<p>42년생 처음이라서 낯설고 어려워 불편해지는 정황이다. 54년생 안정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나, 66년생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라서 충격이 클 수 있다. 78년생 파사로운 햇살을 받아 길조가 썩트르다. 90년생 때와 장소에 따른 상황 파악에 신경 써야 하리라. 02년생 다른 곳 쳐다보지 말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 행운의 숫자 : 34, 63</p>
<p>37년생 지엽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대국을 바라보라. 49년생 지속된다면 반드시 성사한다. 61년생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것이나, 73년생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더 낫다. 85년생 물이 흘러내리듯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옳다. 97년생 궁극적으로는 황금 끝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비유할 만하다. 행운의 숫자 : 40, 56</p>	<p>43년생 눈길을 사로잡는 이채로움이 있을 것이다. 55년생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무용지물이다. 67년생 수리한다 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79년생 섣부른 여자가 판국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91년생 새로운 것이 항상 좋지 않은 법이다. 03년생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었을 때 무난하게 처리된다. 행운의 숫자 : 26, 52</p>
<p>38년생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방도가 없다. 50년생 노력한 만큼 배려해서 진전이 있으리라. 62년생 상대는 험트만 주어도 쉽게 알아들을 것이다. 74년생 주장이나 의견은 속시원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86년생 제반사가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는 동세로다. 98년생 변역의 순종과 함께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32, 91</p>	<p>44년생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56년생 노력 앞에서는 그 어떠한 화도 비껴갈 것이다. 68년생 기운이 상승하여 길지로 안내하는 판도이다. 80년생 분명한 지요면 혼란을 야기하기에 충분하다. 92년생 미리 선수를 치지 않으면 오히려 당하게 된다. 04년생 진위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힘들겠다. 행운의 숫자 : 02, 98</p>
<p>39년생 자기 외에 자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51년생 하의 현상이 대부분의 형국에 영향을 미치리라. 63년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75년생 현재의 상태로 계속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87년생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무시해도 된다. 99년생 함께하되 굳이 상호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6, 64</p>	<p>45년생 필수 사항은 제대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 57년생 기하의 현상이 대부분의 형국에 영향을 미치리라. 69년생 성과를 거둘 수 있으니 기대해볼 만하다. 81년생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93년생 차분히 살펴보고 천천히 판단해도 되나, 05년생 앞당겨 버려질 수도 있으니 대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37, 83</p>
<p>40년생 날카롭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손해를 야기한다. 52년생 내버려두면 큰일나게 될 것이다. 64년생 이동수나 매매에 행운이 따르는 날이다. 76년생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낄 수다. 88년생 주변의 시끄러운 문제로 인해서 지장을 받는다. 00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행하라. 행운의 숫자 : 29, 65</p>	<p>46년생 알맞은 것을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46년생 예기치 못한 풍파를 만날 수도 있다. 58년생 명정을 보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 70년생 조금만 더 진행하고 있으면 원하던 단계에 이르게 된다. 82년생 준비하다가 하루 해를 다 보내게 될 수도 있으니, 94년생 차질없이 예정된 대로 진행된다. 행운의 숫자 : 30, 66</p>
<p>41년생 상대의 의사에 따르는 것도 괜찮다. 53년생 하찮은 것에서 비롯된 불편함이 보인다. 65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마땅하다. 77년생 서두르다 보면 빈틈을 보이고야 말 것이다. 89년생 확실하고 있다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다. 01년생 현재의 국면이 매우 중요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33, 72</p>	<p>47년생 복잡한 상황을 내포하고 있으니 조심하라. 47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 대국을 망친다. 59년생 지나치다 보면 판국을 깨면서 해로운 면 더한다. 71년생 학수고대하면서 노심초사하게 되는 형상이다. 83년생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만 하느니라. 95년생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9, 96</p>